P162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 (CAPD) 환자에서 급성담낭염에 동반된 담증성 복막염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병원 신장내과

황순오 · 강명수 · 박재호 · 길효욱 · 양종오 · 이은영 · 홍세용

서 론 : 복막투석 환자에서 복통을 동반한 탁한 복막투석액 소견을 보일 때 우선 세균성 복막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세균성 복막염이외에도 알러지성 복막염, 혈성복막, 종양 및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을 감별해야 한다. 본 저자들은 복통과 검푸른 녹색의 복막투석액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세균성 복막염으로 오인되었던 급성담낭염에 의한 담즙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1예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80세 여자 환자가 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6개월간 복막투석 시행 중 복부통증 및 복막투석액 색깔이 검푸른 녹색으로 변해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상 생체징후는 체온 36.5℃였으며 복부전체에 압통이 존재하였고 반발통은 없었으며 복막투석액의 색은 검푸른 녹색을 띠고 있었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21,000/mm^3이었다. 혈액화학검사상 혈청 총단백질 5.0 g/dL, 알부민 2.3 g/dL, 총빌리루빈 0.6 mg/dL, ALP 209 U/L, GGT 38 U/L, GOT 30 U/L, GPT 23 U/L이었다. 복막투석액 검사상 pH 8.0, 검푸른 녹색, 백혈구 990/mm^3 (PMN 95%, Lymphocyte 5%)이었다. 입원하여 복강내 항생제 투여 정맥 주사로 증상 호전없고 복막투석액 배양시 음성소견을 보였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시 담석 및 급성 담낭염 소견이 보였으며 담낭 팽배 및 미세 천공 의심되어 경피경간적 담낭 배액술 시행과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이후 항생제 유지하면서 증상 호전되고 복막투석액이 맑아져 복막투석으로 전환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결 론 : 복막투석을 시행받는 환자가 복통 탁한 투석액을 호소할 때, 우선 급성복막염을 의심해야 하나 복막투석액의 색깔이 녹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해야 한다. 이중 급성담낭염에 의한 담즙성 복막염은 아직까지 국내보고가 없으며 담낭염 치료후 성공적으로 치료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